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하나님의 날, 주 말씀>

1. 먼저는 어른 입장의 이야기, 곧 핵심자, 그 날의 주연자의 말씀을 듣는다.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개회 선언을 먼저 하듯,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다.
2. 새롭게 해야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3.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해야 한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벗어날 때 빌딩, 농토, 산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몸뚱이만 가지고 가나안땅으로 갔다. 이상세계를 이루러 가는 데는 그와 같이 깔끔하게 출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 나타나 새로운 말씀을 받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상세계로 가려고 떠난 것이다.
5.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반석, 목자인 예수가 났다. 그 당시 기다리던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었는데,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갖고 모세가 왔다. 400년 전에 있었던 선조와 같은 사람이 온 것이다.
6. 역사라는 것은 인체의 뼈와 같은 것이다. 뼈도 척추, 등뼈, 팔뼈 나뉘듯 성서도 정확하게 나뉘야 한다.

7. 인체의 뼈 마디마디에 관절로 연결되어 있듯, 하나님의 역사는 핵심지 마디마다 중심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중심인물이 넘어져 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8. 아브라함의 제물 실수로 인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섬기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그 후에 그 예언한 날로부터 400년이 마친 그 날에 돌아왔다.
9.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치명적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가르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 했어도 아브라함 뒤 후손들이 탕감 받았다. 탕감 받는 기간이 있다.
10. 허벅지 뼈에서부터 얼마 안 가면 무릎 뼈가 나오듯, 하나님의 역사도 한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아담으로부터 2천 년 뒤에 아브라함이 왔듯 그러하고, 시대적으로는 구약 4000년이 끝나니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이 그러하다.
11. 요셉은 민족적인 조건을 세운 자이다. 아브라함 때 중심자가 책임을 못 한 것으로 인해 후대에 와서 탕감이 시작이 되었다. 요셉이 나타나고 400년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는 그들을 끄집어냈다.
12. 역사는 시작하는 자가 있고, 끄집어내는 사람도 따로 있다.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에 불러와서 시작하는 역사를 했다면, 모세

는 꼬집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했다. 이와 같이 구약은 시작하는 역사라면, 예수님은 꼬집어내는 자이다. 꼬집어내는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13. 이 시대 보낸 자는 꼬집어내는 시대에 왔다. 1978년에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생명권으로 석방시키러 왔다.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인 것이다.

14. 완벽한 신앙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절대 믿는 것이다.

15.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복지로 가서 새로운 역사, 이상세계를 했다. 그러나 가나안 복지로 가는데 지도자를 원망하면 안 된다.

16.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원망, 불만, 불평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오직 감사다.

17. 올해는 하나님이 이상세계를 선포하셨으니, 말씀의 이상세계도 일어나고, 하는 일 마다 이상세계가 계속 일어난다.

18. 이상세계를 하려면 과거는 싹 잊어버려야 한다. 섭리의 나간 자들이나 과거와 비교하며 과거보다 못하다고 한다.

19. 아직 가나안 복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다.

20. 주는 먼저 가나안 복지로 왔다. 그러나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자

들도 있다. 목숨 걸고 하면 된다.

21. 가나안 복지를 갈 때는 반드시 적을 물리쳐야 한다.

22. 이상세계는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생각해라.

23. 이상세계를 이룰 때는 지도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아라. 상대가 싸운다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알았으니 싸워서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24. 주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사야서 11장과 같은 이상세계를 하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동물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사육사가 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25. <이상세계>는 ‘변화시키는 세계’이다.

26. <시대 보낸 자>는 이상적인 말씀을 줘서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해 준다. 이상세계라고 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27. <이상세계>란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육신 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큰일이다.

28. 이 시대 주가 주는 그 말씀대로 절대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절대 믿고, 메시아를 절대 믿도록 해 주는 것이 이상세계이다.
29. 종 같이 대하던 자들을 자녀같이 대해주는 이상세계, 자녀같이 대하던 자들을 신부같이 대해주는 이상세계이다.
30. 보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며, 세상의 애인보다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욱 사랑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대해주신다. 이것은 마지막 역사인 이 시대에 이룬다.
31. 메시아가 오면 가나안 복지의 역사이다.
32. 성장기의 과정의 역사가 있고, 성약 천년 역사의 완성기 역사가 있다.
33. 이상세계는 환경적으로도 이를 수 있다. 월명동도 환경 천국의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기도>

34. 이상세계를 하려면 알아야 한다. 역사를 타야 한다.
35. 지금은 주와 같이 꼬집어내는 역사를 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한다.